

총장로 일대 상가 신·증축 바람 분다

복합쇼핑몰·호텔 등 5곳 진행 '활기' 임대료 인상·브랜드간 경쟁 심화 '우려펀'

아시아문화전당과 이웃한 광주시 동구 총장로 일대가 상가와 호텔을 짓기 위한 신·증축 공사가 잇따르면서 활력을 찾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이를 계기로 도심공동화와 경기불황으로 침체에 빠진 이 지역 상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를 반기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총장로 일대에만 총 5곳에서 상가나 쇼핑몰, 호텔 건축을 위한 신·증축이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들 모두 단층 리모델링이나 소규모의 개

보수 공사가 아닌 대형 공사로 지역 상권의 판도를 바꿀만한 규모라는 것이다.

먼저 눈에 띄는 곳이 광주시 동구 황금동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인근이다. 이 곳은 기존 주점과 의류점포 등을 허물고 대형 상가건물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안도 출신 사업가가 부지를 매입했고 지상 3층의 대형 상가를 8월말까지 신축할 계획으로 분양에 나섰다. 또 이곳 뒤편에서는 5층 건물의 대규모 증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총장로 뒷골목인 옛 황금동 리버사이드 호텔 부지에는 공사기간이 지났지만 스트리트 말티 테마 상가 '더 로드 힐스'가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

급남로 1가 인천상사 건물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곳 2층엔 카페 망고식스가 6월 오픈을 목표로 내주 인테리어 작업중에 있다.

현재는 공사가 중단됐지만 급남로 2가 옛 '클럽 불룸' 건물도 증축 중에 있다. 이 건물은 나주 지역 사업가 임도씨의 소유로 7층 건물을 개조해 호텔 로망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옛 밀리오레 건물에는 이랜드그룹 계열의 쇼핑몰 개점을 위한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이고 총장로 4가 화니백화점 부지에서는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동구청 건축과 한 직원은 "지나해 말부터 총장로를 중심으로 한 신·증축 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1000㎡를 넘는 대규모도 여러 건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데 따른 기대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업체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면 '인구밀집 효과'가 생길것이고 확실한 곳을 선점해야 승산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 상인들도 퇴색한 총장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화영 총장로상인회장은 "대형소

멸이 개점하고 곳곳에서 신·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거리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상권이 서서히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신·증축 증가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상권은 좁은 반면 점포수가 많아지면서 가격이나 오르고 있는 임대료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상인은 "입점하는 기업이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브랜드가 대부분이어서 상권거리 치열한 경쟁을 해야하는데 임대수요가 늘면서 임대료가 오르는 바람에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폐업 주유소 통계 과장 '시끌'

주유소협, 수치 당초 절반 수준 수정

전국 1만3000여 개 주유소를 대표하는 대한주유소협회의 폐업 주유소 수가 실제보다 과장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업계가 뒤숭숭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주유소협회는 매달 공개하는 월별 전국 주유소 현황 자료를 통해 폐업 주유소 수(누적)를 올해 1월 98개, 2월 103개, 3월 122개로 집계했다. 이는 전체 주유소의 1%에 가까운 비중이다. 폐업 주유소 수는 주유소업계의 경영난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인식돼 업계 안팎에서 큰 주목을 받는다.

협회가 추진하는 '공제조합 설립'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폐업 주유소 수가 근거가 됐다. 공제조합은 재정난에 처한 한계 주유소에 전·폐업 자금을 지원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떠나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내부에서 협회 자료의 폐업 주유소 통계가 일부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협회 측은 14일 2012년 1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폐업 주유소 통계에 대한 전면 수정작업을 벌였다. 수정된 자료를 보면 폐업 주유소는 올해 1월 43개, 2월 48개, 3월 67개로 기존 수치에서 절반 가량 줄었다.

주유소협회 일부 회원들은 협회 측이 업계 위기를 과장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통계에 손을 댄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통계 오류 사태가 공제조합 설립을 둘러싼 내부 갈등의 연장선에서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구직자 80% "면접때 불쾌"

구직자 10명 가운데 8명은 자신에게 '갑'(甲)일 수밖에 없는 면접관의 태도에 기분이 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16일 지난 3월 8일~21일 남녀 취업준비생 44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80.3%인 354명이 면접관의 언행 등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불쾌감을 느낀 이유(복수 응답)로는 '시종일관 무시하는 등 압박면접을 해서'(25.1%), '능력을 저평가하며 자질을 의심해서'(22.4%), '연애·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질문해서'(19.8%) 등이 꼽혔다.

면접관에게 불쾌감을 느꼈다고 답한 구직자들은 '해당 기업에 합격해도 입사하지 않는다'(33.6%)거나 '주변 사람에게 해당 기업의 나쁜 점을 알린다'(33.1%)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외에도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피하거나 중단한다'(25.2%), '해당 기업의 입사지원하는 사람을 막는다'(15.4%)는 반응도 나왔다.

/연합뉴스



1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중소기업 우수상품전이 열려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 호응을 얻었다. 이날 상품전에는 액세서리, 스카프, 편백베개, 대나무도마, 아도도어 숙, 잠옷 등 다양한 상품이 전시·판매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오프라인은 '울상' 온라인은 '화색'

유통업체 주가 희비...홈쇼핑, 평균 30%대 올라

국내 소비심리가 바짝 얼어붙으면서 유통업체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한 유통 종목은 하락을 겪는 반면 인터넷과 홈쇼핑 기반 종목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

장에서 롯데쇼핑은 전날 37만5000원으로 마감, 지난해 말(37만7000원)보다 0.53% 하락했다. 신세계는 21만8500원에서 22만6500원으로 3.66% 상승했다. 현대백화점은 15만9000원에서 16만1500원으로 1.57% 올랐다. 이에 반해 인터넷과 TV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3대 홈쇼핑 종목은 주가

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GS홈쇼핑은 지난해 말 15만2500원에서 전년 22만3000원으로 5개월여 사이 46.23% 뛰었다. 현대홈쇼핑은 20.25% 상승했고 CJ오쇼핑은 24.5% 올랐다. 실적 측면에서도 두 부류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롯데쇼핑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451억 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5.2% 감소했다. 신세계의 1~3월 영업이익은 466억원으로 작

년 같은 기간보다 7.7% 줄었다.

반면 홈쇼핑업체인 GS홈쇼핑은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보다 32.8% 뛰었고 순이익은 300억 원으로 1년새 22.7% 늘었다.

CJ오쇼핑의 1분기 영업이익은 380억원으로 10.7% 증가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주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데는 국내 소비심리의 위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저렴하고 비교적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업체로 소비자의 관심이 쏠렸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남양유업, 비정규직 비율 1위

31.6%...식품 대기업 23곳 조사

'밀어내기' 파문에 휩싸였던 남양유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식품 대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벌닷컴이 지난해 말 기준 연매출 2000억 원 이상 식품 대기업 23개를 대상으로 고용·임금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31.6%였다. 남양유업은 전체 직원 2731명 가운데 정규직 1868명, 비정규직 863명이다. 이어

역시 유류제품을 생산하는 매일유업이 18%, 롯데칠성음료가 16.9%로 다음 순이었다.

'하이포크'를 유통하는 축산기업 팜스코(13.6%), 웅진식품(13.2%), 롯데제과(11%), 샘표식품(10.2%)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10%를 넘었다. 오리온(8.7%), 동아원(6.2%), 크라운제과(5.5%) 등의 비정규직 비율도 높은 편에 속했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아동센터에 1500만원

중소 제품 박람회 수익금

광주신세계는 16일 지역 내 저소득층 자녀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행복한 공부방 꾸미기'에 150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을 전달한 광주 북구 나눔꿈 지역아동센터와 서구 예산지역아동센터, 광산구 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는 소외계층 아동의 보호와 교육,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아 힘들게 운영돼 왔다.

이러한 딱한 사정을 접한 광주신세계는 지역아동센터의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 보강을 위한 '행복한 공부방 꾸미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 1500만원의 기금을 전달한 것. 이 기금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백화점 1층 광장에서 진행된 '제 7회 광주전남 농공상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광주 사회 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3곳의 지역아동센터로 전달됐다.

유신열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광주신세계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후원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활동으로 전개할 것이며, 지역내에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배움터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한자, 외국어가 한 손에 쏙!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니며 읽는 편리한 실용만점 포켓북 시리즈. 대능교육만의 노하우가 담긴 포켓북 시리즈는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알짜배기 여행회화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7,000원

알짜배기 영어회화 시리즈
■ 상황별 핵심 문형과 활용단어로 구성
■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6,000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 교육부 지정 필수 단어 수록
■ 각 주제에 맞는 유용한 팁과 응용회화로 구성

알짜배기 고사성어책 각 8,500원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고사성어책과 함께 고사성어 학습용 카드

문의전화 : 02)2634-2007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